

민주 70% 지지…현역 아성 넘을까

[총선 D-100]

전남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에서 오랜 텃밭인 전남에서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반면 이당 현역 의원들은 높은 인물 경쟁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수성을 을 안하고 있다.

4년전 20대 총선에서 전남 유권자들은 당시 ‘새 정치의 아이콘’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호남 대표 정치인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의당에 10석 가운데 8석을 안겨줬다.

오랜 지지를 보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신당에 대한 기대로 풀이됐다.

나머지 2석은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조직력·인물 앞세운

야당 현역과 접전 예상

“당보다는 인물 선호”

순천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차지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당은 합당과 분당을 거치며 사라졌고 당시 당선됐던 야당 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를 딛고 ‘정미대선’에서 승리하며,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 텃밭 틸환에 성공했다.

현재도 7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전남 10석을 모두 석권한다는 목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연초 지역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야당 현역 의원에게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개호 의원의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2년 전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서삼석 의원의 영암·무안·신안만이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이개호·손금주 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천정배·장병완·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자, 당직자들과 함께 참배를 위해 묵역에 들어서고 있다.

무소속이던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 나주·화순과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등 2개 지역은 유력 타당후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당 후보간 경쟁만 치열할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대결에서 고전하거나 접전이 예상된다.

목포의 박지원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황주홍 의원,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의원, 여수갑 이용주 의원, 여수을 주승용 의원,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의원 등은 모두 만만

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현역 의원들이다.

특히 대안신당이 이달 중순 창당돼 본격 전열을 가다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복귀를 밝힐 때 따라 제3지대 신당도 점쳐져 승부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5일 “지난 지방 선거는 문재인 정권 초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접권 후반 기로 가는 이번 총선에서는 2년전 지방 선거처럼 민주당에 절대 지지를 보내 주기를 힘들 것”이라면서 “이제는 호남도 경쟁체제인 만큼 당보다는 인물 선호 투표 현상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0개 선거구 예비후보 41명…민주당 30명

순천과 광양·곡성·구례 7대1…현역 의원 등록 없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이면 딱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4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순천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가 각각 7명씩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주·화순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여수갑 5명, 영암·무안·신안이 4명, 목포와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각 3명, 해남·완도·진도 2명,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명 순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민중당 3명, 정의당 2명, 국가혁명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10명의 현역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 4·15 총선 전남지역 예비후보자(이름, 나이, 직업, 소속정당, 경력)

◆ 목포시

△김원이(51·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우기종(64·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한창(47·특수단체인·더불어민주당·전 국민권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 여수시

△강화수(46·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국기안보실 행정관)

△김유학(55·정당인·더불어민주당·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주철현(61·변호사·더불어민주당·전 민선6기 어수시장)

△김점유(57·유민산업 대표·더불어민주당·전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김민수(60·시인·정의당·현 한국작가회의 이사)

◆ 여수시

△김희재(57·변호사·더불어민주당·현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

△정기명(57·변호사·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당 어수을 지역위원장)

△박종수(63·겸임 교수·더불어민주당·전 주려 전권공사)

◆ 순천시

△김영득(60·팔마청백 리문화재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전 민주당 부대변인)

△노관규(59·변호사·더불어민주당·전 순천시장)

△서갑원(57·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의전 정무1비서관)

△장만채(62·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16대, 17대 전라남도교육감)

△김선동(52·정당인·민중당·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정동호(59·경호엔지니어링총합건축사무소 건설사업관리본부 이사·국가혁명당금당·전 종합건축사무소 가람건축 건설사업관리본부 이사)

△장성배(48·세계대학태권도연맹 회장·무소속·현 김대중기념사업회 청년팀장)

◆ 나주시·화순군

△김승철(50·약사·더불어민주당·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보건특보)

△김병원(66·정당인·더불어민주당·현 문재인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신정훈(5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인곤(61·무직·더불어민주당·전 목포시 부시장)

△백다래(55·나주혁신도시 사회문화연구소 대표·더불어민주당·현 나주시정책자문단 위원)

△안주용(53·정당인·민중당·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박근표(59·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YTN 시청자센터장)

△안준노(60·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대통령 후보 특보)

△서동용(55·변호사·더불어민주당·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변호사)

△이경자(49·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교수·정의당·전 보육교사 14년 근무)

△유현주(49·정당인·민중당·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고주식(53·털보실내 인테리어 대표·더불어민주당·현 국가혁명당금당·당협위원장)

△김광영(82·무직·무소속·전 광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우(54·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화복지신문 대표)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군산시

△김수정(57·정당인·더불어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승남(53·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제19대 국회의원)

△한명진(5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광국(61·김정평가사·더불어민주당·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윤재갑(6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백재숙(5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선임행정관)

△배용태(6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필봉(60·공인노무사·무소속·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퇴직)

△이운석(60·동신대학교 객원교수·무소속·전 제18, 19대 국회의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